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12. 13(금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미 주

- **美, 미군의 드론 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오픈AI와 파트너십**(연합뉴스)
  - 12.5 언론은 챗GPT 개발업체 오픈AI가 미국의 무인 방위산업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 AI모델이 드론 공격 위험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격추하는 대무인항공기시스템(CUAS)을 개선할 것이라 보도
    - ↳ Counter-Unmanned Aircraft System
  - ※ 다만, 오픈AI는 이번 파트너십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기술이 여전히 무기 개발이나 인명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는데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부언
- **美 보험사 CEO 총격 사망, 재계 경영진 온라인 동선 노출 자제**(연합뉴스)
  - 12.7 언론은 美 보험사 CEO 「브라이언 톰슨」이 뉴욕 호텔 부근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으며, 美 연방수사국(FBI)은 용의자에 대한 현상금을 5만달러(7100만원)를 걸었다고 보도
    - ※ 범행 前 온라인에서 피해자의 신상, 동선 등이 노출된 것으로 밝혀져 기업들은 웹페이지에서 경영진의 사진을 내리는 등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부언
- **美, '테러단체 확보 우려' 시리아 화학무기 제거 추진**(헤럴드경제)
  - 12.9 언론은 미국이 「바샤르 알 아사드」 시리아 정권이 보유하고 있던 화학무기를 내전으로 생긴 혼란을 틈타 테러단체가 확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중동의 여러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고 보도
    - ※ 시리아 叛軍은 화학무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의사와 함께 무기 및 민감한 시설에 대한 국제사회 모니터링에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발표

## 유럽

### ○ 英, 하마스 미화 온라인게임 offline 전환(JNS)

- 12.5 英 대테러기관은 이스라엘인을 살해하는 하마스 테러리스트의 행동을 시뮬레이션한 컴퓨터 게임을 offline으로 전환하라 명령했다며 테러리스트 역할을 맡아 이스라엘軍에 자살 폭탄 테러 등의 미션이 있다 보도
  - ※ 게임에 하마스가 '23년 10.7 이스라엘을 침공한 사건을 노골적으로 재현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부언

### ○ 英, 쿠르드 테러 집단 수사의 일환으로 6명 체포(MSN)

- 12.5 런던 경찰청 테러방지사령부는 쿠르드 커뮤니티 센터를 포함해 8개 장소에서 쿠르드 노동자당(PKK)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6명을 체포했다며 이번 체포는 테러 활동에 대한 경찰의 대규모 수사中에 이루어졌다 보도
  - ※ PKK는 독립 쿠르드 국가를 추구하는 분리주의 단체로, 2001년 영국에서 테러단체로 지정

## 중 동

### ○ 이스라엘, 호주에서 反유대주의 강해지자 여행주의 경고(연합뉴스)

- 12.10 언론은 호주에서 방화테러 등 反유대주의가 더욱 심각해지자, 이스라엘 당국 등이 호주 여행을 고려하는 유대人들에게 극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는 한편, 여행경보도 상향하였다고 보도
  - ※ 호주 여행객 및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도 유대인 관련 시설 방문 또는 행사 참석時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각별한 주의 필요

## 아·태평양

### ○ 파키스탄軍, 아프간 국경에서 반군소탕작전 수행(KBS)

- 12.8 아프간 국경지역에서 파키스탄軍과 TTP 등 반군 무장 조직이 충돌하여 파키스탄 군인 6명과 반군 22명이 사망했으며, 파키스탄軍은 테러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작전을 계속수행할 것이라고 발표

※ 파키스탄 탈레반(TTP)은 아프간 탈레반과는 별개 조직이지만 오랫동안 협력관계로서 아프가니스탄과 탈레반을 오가며 테러활동을 벌이는 中

### ○ 호주, 유대교 회당 방화 테러 용의자 3명 수배(국제뉴스)

- 12.9 호주 경찰은 지난 6일 멜버른市 유대교 회당에서 발생한 방화 테러 용의자 3명을 수배 중이라고 발표하였으며, 「앨버니지」 총리는 “예배 장소에 대한 폭력과 겁박, 파괴는 잔학행위”라며 반유대주의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

※ 언론은 이번 방화는 호주에서 지난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유대인과 무슬림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는 가운데 발생하였다고 부언

케냐, 알샤바브의 통근버스 겨냥 테러 공격

- '19.12.6, 17:30경 케냐 와지르<sup>發</sup> 만데라<sup>\*行</sup> 50인승 버스가 북동부 와르가두두와 쿠톨로 지역 사이에서 무장세력의 급습을 받고, 승객 10명 사망
  - \* 케냐 북동부에 소재한 소말리아 접경 도시
- 무장단체는 버스를 정차시킨 뒤, 무슬림과 비무슬림 두 그룹으로 승객을 구분하여 10명의 비무슬림<sup>\*</sup>을 현장에서 총격 살해
  - \* 경찰관 7명, 의사 1명, 민간인 2명
- 사건 직후, '알샤바브'<sup>\*</sup>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성명 발표
  - \* 최근, 同 테러단체는 소말리아는 물론, 케냐에 대한 테러 공세도 지속
- 한편, 케냐 정부는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'와지르-만데라' 운행 버스 노선의 경계를 강화하고, 국경 안팎을 넘나들며 준동중인 테러단체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력 경고

< 알샤바브(AS) >

- (목표·결성) 소말리아내 외세 축출 및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'06년 결성
  - \* 테러단체 지정 : 미국('08.3), 영국·캐나다('10.3)
- (주요인물) 지도자 「아흐메드 우마르」, 副사령관 「마하드 카라테」
- (연계세력) 알카에다(AQ, AQAP, AQIM), 보코하람
- (활동지역) 소말리아 쏘域 및 케냐내 소말리아 접경지역
- (주요테러) '19.7 모가디슈 시청 회의실 자폭 테러(시장 등 고위간부 8명 사망)  
 '18.11 모가디슈 내무부 청사 차량폭탄·총격 테러(사망 58명, 부상 106명)  
 '17.10 모가디슈 사파리 호텔 등 차량자폭 테러(사망 276명, 부상 300여명)